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2026 봄호
Vol. 76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는
학생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책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사서들이 협력하여
발간하는 학생중심 독서정보지입니다.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2026 봄호
Vol. 76



발행인 이승호 편집장 홍은경

편집위원 장영순, 김경진, 안승진 | 김경주, 김보경, 김지인, 윤정화, 임체연, 정세희, 정은교, 정지희, 최아람, 한은경

발행일 2026년 3월 발행처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 031-240-4035 누리집 lib.goe.go.kr/lib 디자인 디자인단비

02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03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추천도서

어린이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길지도 | 프랑켄 수선집 | 호호당 산냥이 | 24분 편의점 1호 |
과자 사면 과학 드립니다 | 안 때렸는데 폭력이라고요? | 어린 변호사 |
스파이더맨 지퍼 | 열 살에 시작하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
황당하지만 수학입니다 9: 스파게티에 수학이 들어간다고?

청소년

(빅데이터 시대에 10대가 꼭 알아야 할) 손자병법 | 청소년을 위한 논어 | 땀방울과 함께 과학 |
내 마음이 왜 이럴까? | 진짜 호르몬 때문일까? | 열네 살 진로학교 |
경제로 지구를 구해볼까? | 옥상에서 기다릴게 | 윤슬의 바다 | 질문의 숲

일반

뒷마당 탐조클럽 | 역사가 묻고 의학이 답하다 | 영화의 탄생, 그때 그 사람 |
미술관에 간 할미 | (오박사의)미래교육으로 가는 7가지 방법 | 공부라는 세계 | 아무튼, 인터뷰 |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 | 편안함의 습격

34 책과 영상의 만남 | 북트레일러(BookTrailer)

36 행복한 그림책 | 색과 함께 성장하는 그림책

39 쉬어가는 페이지 | 책 속 문장

40 꿈을 만들어 가는 진로독서 | 디지털 세상의 건축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42 교과서 속 책이야기 | 초등 1~2학년 국어

46 책 읽는 스승 릴레이 | 이황초등학교 교감 김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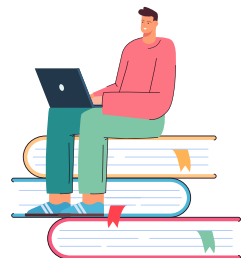
48 지금 학교도서관은? | 도공초등학교 사서 고해숙

50 학부모 추천, 함께 읽는 책 | 새책평가단 회원 조혜영

52 웹툰 | 한봉고등학교 최서연 학생

54 사서를 꿈꾸다 | 효원고등학교 졸업생 공미정

56 독서퀴즈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참여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및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사서, 교육공동체 (학생·학부모·교사)
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 평택, 포천, 광주, 김포, 여주·가남, 평생학습관

목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정보자료 제공

자료분야



문학, 인문, 사회, 과학, 교양,
교육, 고전, 어린이(8개 분야)

자료선정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간된 신간자료(고전 예외)로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에 권장할 만한 도서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추천도서

순서	분야	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린이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길지도	요시타케 신스케	주니어김영사
2		프랑켄 수선집	윤담요	보림
3		호호당 산냥이	박보영	창비
4	초등중	24분 편의점 1호	김희남	사파리
5		과자 사면 과학 드립니다	정윤선	풀빛
6		안 때렸는데 폭력이라고요?	임수경	어크로스주니어
7		어린 변호사	허교범	위즈덤하우스
8		스파이더맨 지퍼	김점선	가문비어린이
9		열 살에 시작하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박소윤, 이주희	지성주니어
10		황당하지만 수학입니다 9: 스파게티에 수학이 들어간다고?	이광연, 최향숙	와이즈만BOOKs

순서	분야	서명	저자	출판사
11	청소년	고전 (빅데이터 시대에 10대가 꼭 알아야 할) 손자병법	손무	주니어미래
12		고전 청소년을 위한 논어	공자	평단
13		과학 땡땡이와 함께 과학	김성환	지노
14		교양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나이토 요시히토	한국경제신문
15		교양 진짜 호르몬 때문일까?	박승준	다른
16		교육 열네 살 진로학교	김경집	데이스타
17		사회 경제로 지구를 구해볼까?	주수원	착한책가게
18		문학 옥상에서 기다릴게	한세계	자이언트북스
19		문학 윤슬의 바다	백은별	바른북스
20		인문 질문의 숲	김종원	포레스트북스

순서	분야	서명	저자	출판사
21	일반	과학 뒷마당 탐조클럽	에이미 탄	코쿤북스
22		과학 역사가 묻고 의학이 답하다	전주홍	지상의책
23		교양 명화의 탄생, 그때 그 사람	성수영	한경arte
24		교양 미술관에 간 할미	할미	더퀘스트
25		교육 (오박사의)미래교육으로 가는 7가지 방법	오찬숙	박영스토리
26		교육 공부라는 세계	켄 베인	다산초당
27		문학 아무튼, 인터뷰	은유	제철소
28		사회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더스토리
29		사회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	이주택	월요일의꿈
30		인문 편안함의 습격	마이클 이스터	수오서재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길지도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면
혼날 짓을 한 사람에게 정말 별이 내리기도 한대요.”

- 10~11쪽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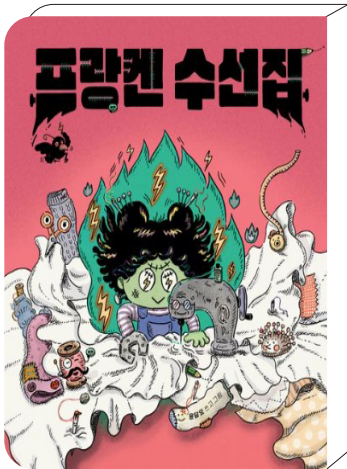
#기분 #위로
#따뜻함 #그림책

글 | 요시타케 신스케
움김 | 고향옥
출판사 | 주니어김영사(2025)
쪽수 | 64p

누구든지 하루를 지내다 보면 어떤 특정 계기로 기분이 언제나 좋게 지낼 수는 없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다. 기분이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계속 최저점에 머물지 않고 다시 나아지기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는다. 대부분 빠르게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간 기분에 몰입하다 보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길지도」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기분 전환하는 방법을 사소하면서도 단순하게 그 해답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단순히 어린이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른들도 공감할 만큼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을 읽는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도록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어릴 때 뭔가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생각했을 법한 상황들을 아이의 입장에서 말을 함으로써, 누구든지 힘든 일이 있다면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소소하게 위로와 따뜻함을 느꼈음을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길지도’라는 기대감을 안고 행복을 찾길 바라며, 이 책을 한 번 읽어보고 깨달음을 얻길 권한다. **책**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사서 장정호

프랑켄 수선집




#프랑켄 #수선집
#수선 #동화책

글 | 윤담요
출판사 | 보림(2023)
쪽수 | 4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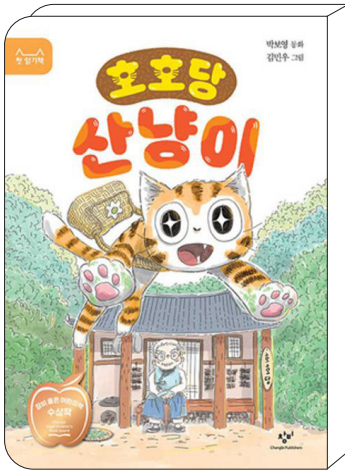
“안녕, 난 까까야. 까악!
혹시 프랑켄 수선집이라고 들어 봤어?
뭐든지 다 고쳐 주는 아주 특별한 수선집이야.”

- 1쪽 발췌

‘어려운 일이 있나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프랑켄 수선집을 부르세요. 프랑켄 수선집은 뭐든지 다 고쳐 주는 아주 특별한 수선집입니다.’ 책을 처음 보고 뭐든지 다 고쳐 주는 수선집의 주인공이 프랑켄이라니 제목과 표지부터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프랑켄이야말로 누덕누덕 기운 자국이 있는 인간이니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 그림책이라 더 흥미롭다. 그림책 속에서 프랑켄이 수선을 위해 찾아가는 곳은 4곳으로 다양한 장소에 있는 손님들을 찾아가 맞춤 수선을 한다. 프랑켄이 하는 수선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생물까지 다양하며 마음까지도 멋지게 수선해 준다. 길가에 버려진 물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궁금함에서 그려진 프랑켄 수선집은 윤담요 작가 특유의 재기 발랄한 상상력과 책을 가득 채우는 그림이 어우러져 굉장히 사랑스럽고 따뜻한 내용이다. 귀여운 그림들이 책을 가득 채워 숨은 그림 찾듯 보며 즐기는 것도 책을 읽는데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여주기념도서관 사서 서예나

호호당 산냥이



#울타리 #사랑
#보물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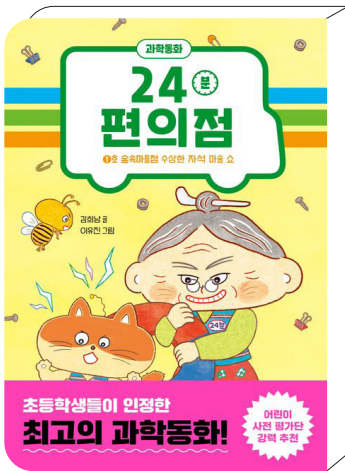
글 | 박보영
그림 | 김민우
출판사 | 창비(2025)
쪽수 | 115p

“언제든 호랑이 없는 호약산은
산냥이가 지킬 테니까!”
- 113쪽 발췌

2025년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의 저학년 동화 부분 대상 수상작으로 신성한 기운을 머금은 약초들이 가득한 호약산과 그 산의 꼭대기에 있는 작고 허름한 약초방 호호당, 그리고 호호당의 주인이자 산을 지키는 산군 호호 할멈, 별난 조수 산냥이를 소개하며 책이 시작된다.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할멈을 돕고 산과 약초방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산냥이와 그런 산냥이의 실수를 따끔하게 혼내지만 누구보다도 든든하게 지켜주고 기회를 주는 할멈의 모습 속에서 아이를 믿고 응원하는 어른과 그 애정을 바탕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책 속에 등장하는 음흉한 너구리 너굴 아재가 황금색 비단 보자기에 싸인 할멈의 보물 1호를 훔쳐 가버리는데 할멈의 소중한 보물 1호가 무엇인지 책을 통해 찾아보길 바라며, 우리의 황금색 비단 보자기 속 보물 1호에 대해서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책**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 사서 홍정희

24분 편의점 1호



#과학동화 #편의점
#자석

글 | 김희남
출판사 | 사파리(2025)
쪽수 | 104p

“이 버스는 24시간 편의점이 아니라
24분 편의점이라도.
24분! 자, 여기 ‘분’ 글자가
분명히 보이지 않소?”

-11쪽 발췌

외딴 숲 속 마을에 편의점 버스가 문을 연다. 24시간 운영하는 일반적인 편의점과 달리 이곳은 하루에 딱 24분만 이용할 수 있다. 손님이 있든 없든 사장 할머니는 24분이 되면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린다.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제비가 가을에 남쪽으로 날아가는 까닭은?”, “버스가 달리다 갑자기 멈추면 왜 몸이 앞으로 쏠릴까요?” 등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또한, 길을 잃어버린 손님의 머리핀을 자석에 문질러 나침반을 만들어 주거나, 자석을 이용해 화폐 위조범의 가짜 동전을 가려내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예리한 관찰력과 해박한 과학 지식으로 해결해 주는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왜 24분만 편의점 문을 여는 걸까? 어딘가 수상한 할머니의 특별한 편의점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평소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는 물론, 과학을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교과서 속 어려운 과학의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찬**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사서 신성욱

과자 사면 과학 드립니다




#과학상식 #먹거리
#숨은과학 #편의점

글 | 정윤선
출판사 | 풀빛(2025)
쪽수 | 123p

“마이크로파가 뭐냐고? 방송을 보내거나,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전파와 비슷하지. 햇빛이 따뜻하게 하는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 마이크로파도 물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 115쪽 발췌

‘과자 사면 과학을 드립니다’는 우리가 편의점에서 자주 사 먹는 간식들을 통해 생활 과학의 원리를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주는 과학 교양서이다. 목차부터 과자 코너, 라면간식 코너, 아이스크림 코너, 유제품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기분이 든다. 비행기에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이유를 시작으로 껌의 재료, 불꼬고 볶음면을 먹으면 입안이 얼얼한 이유, 띠부띠부씰의 붙었다 떼었다 할 수 있는 비밀,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세로로 터지는 소시지, 스포츠음료와 물의 차이 등 평소 궁금하던 의문들을 편의점 간식들이 직접 이야기해 주는 대화체로 풀어내며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설명해 준다. 또한, 관련 간식들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건강, 재활용, 환경오염 관련 문제를 제시해 주며 비판적 사고로 확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평범한 일상 속 예상하지 못한 숨은 과학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호기심 많은 어린이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사서 박혜인

안 때렸는데 폭력이라고요?



#폭력 #또래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초등사회

글 | 임수경
출판사 | 어크로스주니어(2025)
쪽수 | 13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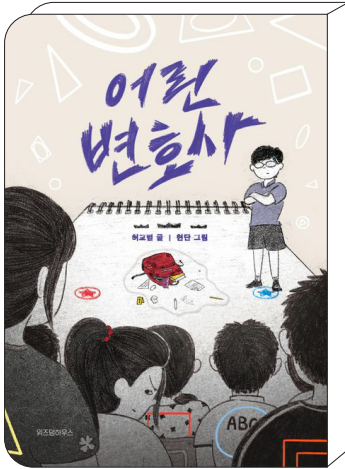
“이번에 당장 내가 피해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폭력이 쉽게 허용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 92쪽 발췌

이 책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간과해 온 ‘비신체적 폭력’의 문제를 어린이의 시선에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자신이 장난으로 한 말이 친구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내가 한 말은 장난이었을 뿐인데 왜 폭력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이야기는 폭력을 단순히 신체적인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말 한마디, 눈빛, 따돌림 같은 행동까지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알려주며 폭력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폭력의 기준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멈출 수 있을까. 아이들의 언어로 풀어냈지만, 어른에게도 폭력의 의미를 차분히 되돌아보게 한다. 학교에서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아이들, “나는 그런 적 없는데...”라고 말하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꼭 한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책**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사서 김현주

어린 변호사



#법정스릴러
#추리소설
#변호사

글 | 허교범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2025)
쪽수 | 17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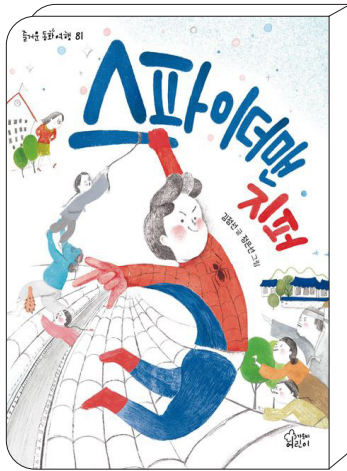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그리고 변호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다른 선택은 없어.”

- 14쪽 발췌

우리 반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교실을 배경으로 피고인, 변호사, 검사, 좌, 우에 있는 판사들, 배심원까지 학생들이다. 담임선생님이 재판장인 교실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주인공 ‘성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1심 재판에서 패배한 성희는 결국 항소하고 변호사까지 바꾸게 되는데, 과연 새로운 변호사는 성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일어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꼭 들어가 보자. ‘성희의 새로운 변호사가 어떻게 재판을 이기게 해 줄까?’ 생각하며 읽다 보면 어린 변호사의 변호하는 실력에 놀라게 될 것이다. <스무고개 탐정> 시리즈를 집필한 허교범 작가의 신작으로 책 속의 어린 변호사도 명탐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 속 사건의 범인이 성희가 아니라면 진짜 범인이 있지 않을까, 추리 문제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읽어보길 추천한다. **책**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사서 이정하

스파이더맨 지퍼



#꿈 #우정 #씨름
#어린이꿈
#성장동화

글 | 김점선
출판사 | 가문비어린이(2024)
쪽수 | 84p

“거미 도령. 이제 네 세상으로 돌아가.”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도망치지 말고 해 보는 거야.”
덕령이가 내 등을 쓰다듬었다.
- 77쪽 발췌

「스파이더맨 지퍼」는 주인공이 스파이더맨 후드티 지퍼를 끝까지 올려 얼굴을 가리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엄마의 지나친 간섭과 주변의 기대 속에서 주인공 무정이는 씨름을 하고 싶지만, 엄마는 공부만을 강요한다. 점점 지쳐가던 무정이는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퍼를 올리고 숨지만, 어느 날 꿈속에서 조선시대 임진왜란 영웅 김덕령을 만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덕령이와 친구 대소와 함께 도깨비 씨름 대결을 펼쳐 승리하게 되면서 무정이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된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이전과 달리 용기를 내어 현실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씨름에 당당히 도전하며 스파이더맨 후드티의 지퍼를 내리게 된다. 이 책은 꿈을 지키는 용기와 성장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격려하기를 바라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읽어보길 추천한다. **책**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사서 심영주

열 살에 시작하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나의 특별함을 누군가 알아주고 칭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품게 돼.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생겨서 친절하게 대하고, 나아가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칭찬받을 행동을 더 열심히 하기도 하지.”

- 25쪽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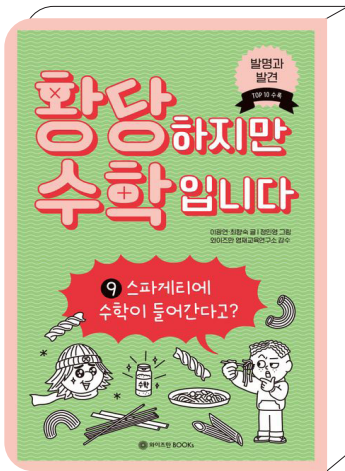
#데일카네기
#인간관계 #친구
#대화 #표현

글 | 박소윤, 이주희
출판사 | 지성주니어(2025)
쪽수 | 144p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에게, 학교에 가고부터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회인이 된 이후에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는 신뢰와 지지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반복된 일상에서 활력이 된다.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렵다. 이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가며 설명해 준다. 처음 만난 친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화법부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표현 방식까지, 한참 친구 관계에 예민할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다양한 경험은 한 사람의 성격과 애착 유형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친구 관계에 고민이 있다면 지금부터 데일 카네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사서 김아련

황당하지만 수학입니다 9 : 스파게티에 수학이 들어간다고?



“면의 종류가 다양한 까닭은 면의 모양에 따라
요리할 때 장단점이 생기기 때문이야,
그 장단점은 도형의 성질로부터 비롯되지
원은 면적대비 둘레가 가장 작은 도형이잖아?”

- 115쪽 발췌

#수학 #발명 #발견

글 | 이광연, 최향숙
출판사 | 와이즈만BOOKs(2025)
쪽수 | 88p

‘스파게티에 수학이 들어간다고?’는 수학자인 이광연 교수와 최향숙 동화작가가 함께 쓴 책으로, 수학의 원리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호기심 가득한 장면들을 수학적 관점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수학 교양 동화이다. 스파게티 소스가 잘 묻는 면 모양, 연필이 육각기동인 이유, 자동차 타이어 무늬 속 수학, 병뚜껑에 담긴 21과 삼각형 등 생활 속에 담긴 도형, 비례, 분수, 곱셈 등 다양한 수학 개념을 쉽고 흥미롭게 보여줌으로써 수학이 얼마나 실생활과 밀접한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야기의 흐름이 호기심-질문-탐구-발견으로 이어져서 어린 독자들이 흥미를 갖고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어렵고 힘든 수학 어디에 활용하죠?라고 의문을 품는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며, 어린이들이 수학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유용한 학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기대해 본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사서 이미경

(빅데이터 시대에 10대가 꼭 알아야 할) 손자병법



#이기는 법
#지피지기 백전백승
#손자 #병법서

글 | 손무
출판사 | 주니어미래(2024)
쪽수 | 247p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운다 하더라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게 된다.
그러나 적을 알지도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 71쪽 발췌

어릴 때부터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 책은 전쟁에서 이기는 비법을 기술해 놓은 고대 중국의 병법서이다. 총 13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한자 원문과 해설이 함께 수록돼 있어 청소년들도 읽고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한 전쟁이야기인가? 싶었던 이 책은 오늘날의 공부, 인간관계, 진로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놀랍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으뜸이다.’에서는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전쟁은 오래 끌수록 불리하다’에서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고대 중국의 전쟁 상황과 현대 사회의 상황이 기가 막히게 접목이 되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전이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으로 바뀔 수 있다니! 단순히 옛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현실에 지칠 때 이 책을 읽고 잠깐 멈춰서 현명한 인생 전략을 세우는 법을 배우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사서 권효진

청소년을 위한 논어



#논어 #공자 #고전
#청소년고전
#동양고전

글 | 공자 원저, 심범섭
출판사 | 평단(2025)
쪽수 | 255p

“조화는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하는데
조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방법은
사람들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는 것이다.”

- 25쪽 발췌

논어는 유학의 기본 경전으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 동양고전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논어'는 20편, 500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논어 원문을 9가지 주제로 나누어 청소년들이 공자의 사상을 쉽게 이해하고 '도덕, 인간관계, 자기 성찰'을 중심으로 삶의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쓴 책이다. 책에 같이 실린 일러스트와 팁 자료들은 고전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더해주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논어는 시대를 뛰어넘은 위대한 지혜와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고, 논어 속 공자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올바른 가치관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예의, 존중, 배려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춘 삶을 살아가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고전은 힘이 있다. 공자의 지혜가 청소년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따뜻한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책**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 사서 서민혜

댕댕이와 함께 과학



#과학이야기 #과학지식
#일상과학
#댕댕이

글 | 김성환
출판사 | 지노(2025)
쪽수 | 18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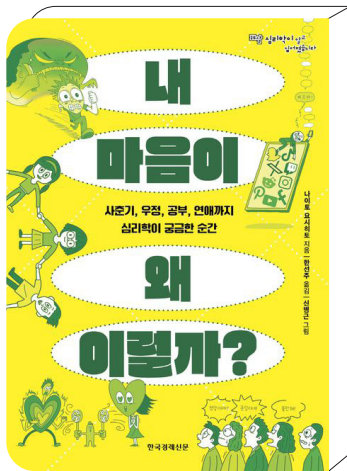
현재 한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30%가 반려인이며, 약 3~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애완'의 대상이 아니며,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댕댕이와 함께 과학」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은 아홉 살 강아지 낄매 '깜돌이'와 '공주', 그리고 두 반려견과 함께 사는 직장인 '한이'이다. 산책과 간식을 좋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깜돌이, 호기심 많은 과학공주 공주, 그리고 수학·과학·물리·천문학을 좋아하는 한이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는 다양한 과학적 순간들이 숨어 있다. 이 책은 깜돌이의 엉뚱한 질문에 공주가 쉽고 재미있게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성, 주변시, 별자리, 중력, 상대성이론 등 19가지 과학 개념을 생활 속 사례와 연결해 설명한다. 평소 과학이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과학 입문서가 되어 줄 것이다. [책](#)

“응, 작은 세상 속에는 여러 재밌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고 우리는 그 원리들을 밝혀내면서 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할 수 있어, 작은 세상이 큰 세상을 이루는 일부이니까.”

- 173쪽 발췌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사서 한상숙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청소년심리학입문서
#나이토요시히토
#마음공부

글 | 나이토 요시히토
옮김 | 한선주
그림 | 신병근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2025)
쪽수 | 23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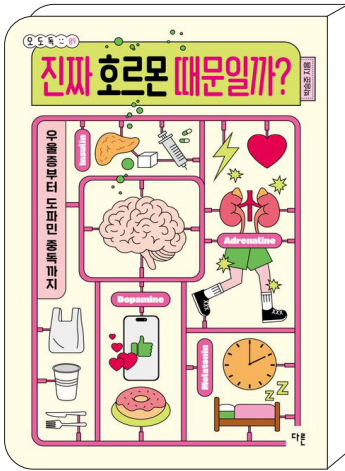
“기본적으로는 코치님과 감독님 말씀에 잘 따라야겠지만 도저히 수긍하지 못하겠다면
싶을 때는 적당히 흘려주세요.
지도자도 사람이니까 오판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도 있으니까요.
선수 본인이 이해하고 즐기지 못하면 좋은 경기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 107쪽 발췌

가끔은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누군가의 한마디에 괜히 상처 받는 순간이 있다. 이 책은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왜 일어나는지를 친절하고 흥미롭게 설명해 주는 심리 교양서다. ‘왜 자꾸 SNS를 확인하게 될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이상한 걸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할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을 ‘인간의 본능’과 ‘심리의 법칙’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또한 단순히 감정을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을 더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너 MBTI가 뭐야?”라고 묻는 게 일상이 된 요즘, 이 책은 MBTI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진짜 내 마음의 이유’를 심리학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이 책이 내 마음을 이해하는 여정의 든든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책**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사서 임수정

진짜 호르몬 때문일까?



#호르몬#내분비계
#생활습관
#도파민중독
#환경호르몬

글 | 박승준
출판사 | 다룬(2025)
쪽수 | 14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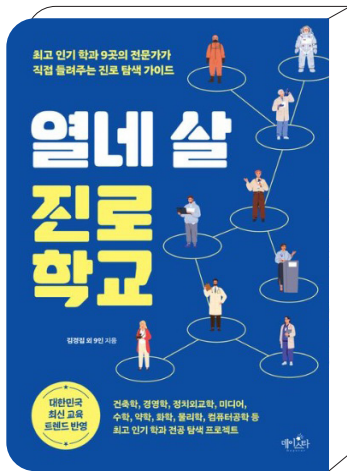
“호르몬은 한마디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아주 적은 양의 화학물질이야. 하지만 양이 적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곤란해. 호르몬이 우리 몸에 일으키는 변화는 엄청나게 크거든”

- 18쪽 발췌

이 책은 의학자인 저자가 청소년을 위해 호르몬에 대해 쉽게 풀어쓴 책으로 우리가 왜 특정한 순간에 기분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는지를 ‘호르몬’이라는 열쇠로 풀어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을 끊임없이 오가며 신호를 전달하는 호르몬은 에너지와 감정, 집중력까지 좌우한다. 저자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사례와 질문을 곁들여 호르몬을 설명한다. 공부가 잘되는 시간의 비밀, 《모나리자》 그림 속 비밀처럼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부터 현대 사회의 중독 문제와 환경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며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각 장마다 제시되는 틈새 토론 주제를 통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소년이 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게 만든다는 점이 인상적인 안내서다. 호르몬에 대해 알고 싶은 청소년이나, 관련 지식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찾는 성인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책**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 사서 정지희

열네 살 진로학교



#꿈 #편견 #진로

글 | 김경집
출판사 | 데이스타(2025)
쪽수 | 17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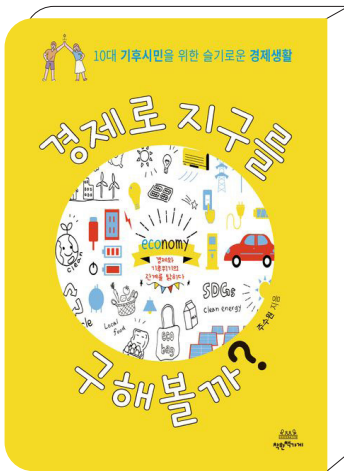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누구나 앱을 만들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컴퓨팅 사고적인 접근 방법을 더해 앱 스토어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으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과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 164쪽 발췌

「열네 살 진로학교」는 꿈을 찾아 방향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작은 나침반이 되어주는 실용적인 진로 탐색서이다. 건축학, 경영학, 정치외교학, 미디어, 수학, 약학, 화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등 우리나라 최고 인기 학과 9곳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로를 위한 단순한 직업 소개를 뛰어넘어 각 분야 학문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을 알기 쉽게 다루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9가지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야기를 통해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 자신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느끼게 된다. 그저 막연했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구체화된 학문 탐색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진로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여러 갈래길에서 미래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필독서이다. **책**

경기도교육청여주기념도서관 사서 윤상배

경제로 지구를 구해볼까?



#경제 #기후위기
#청소년 #생산
#소비 #분배

글 | 주수원
출판사 | 착한책가게(2025)
쪽수 | 174p

“지난 200년간 인류의 삶은 더욱더 많은 것을
소비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소비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어떤 방향의 삶을 살 것인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 134쪽 발췌

이 책은 경제와 기후위기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다. 경제와 기후위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자는 경제를 통해 기후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석연료 사용이 늘었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기후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생산, 소비, 분배라는 경제의 3요소를 통해 경제구조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오랜 시간 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해 왔는지, 정부와 각 나라가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 왔는지를 다양한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각 장마다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경제 발전과 기후위기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을 통해 지구의 내일을 만들어 갈 청소년들이 경제적 사고와 환경 의식을 함께 키우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행동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책](#)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사서 백명은

옥상에서 기다릴게



#마음의성장
#우정과그리움
#조용한위로

글 | 한세계
출판사 | 자이언트북스(2025)
쪽수 | 248p

“내가 딱히 착해서
김영원한테 음료를 가져다준 건 아니었다.
나 역시 눈물이 날 때 누군가 알아차려 주길 바랐으니까.
혼자 있고 싶을 때 옥상에 가는 주제에,
내가 혼자라는 걸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다.
모순된 감정이었다.”
- 60쪽 발췌

이 책은 고등학생 정유신이 친구 김영원의 죽음을 겪고 그의 형 김지원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친구의 죽음’이라는 다소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죽음 그 자체보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흐름과 회복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유신은 영원의 일기를 읽으며 잊고 지내던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의 속도로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우정, 이별, 상실, 감정억압, 자아탐색, 부모님의 기대 등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고민과 깊이 맞닿아 있다. 청소년기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과 내면의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내어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든다. 잔잔하면서도 여운이 오래가는 문장과 특유의 분위기로 조용한 위로를 전하며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마음속 감정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치유의 메시지를 건넨다.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사서 김아진

윤슬의 바다



#순수한사랑
#청소년소설 #성장
#다름과포용

글 | 백은별
출판사 | 바른북스(2025)
쪽수 | 157p

“우리의 사랑은 성숙할 리 없었다.
아니, 평생 성숙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린, 얼빠지고 멍청한 사랑을 하자.
절대 성숙해지지 말자”

- 126쪽 발췌

이 책은 제목부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흔히 쓰이지 않는 순우리말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이 비치는 잔물결을 뜻하는데, 이 책의 여주인공 이름이기도 하다. 남주인공 이름이 ‘바다’이기에, 작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제목에 담아내려 한 듯하다. 청소년 작가답게 또래의 눈높이에서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낸다.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만큼 세련되지는 않지만, 청순하고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러나 이 사랑은 단순히 아름답고 달콤하지만은 않다. 희생과 고통이 뒤따르는 사랑, 사회의 시선 속에서 힘겹게 이어가는 사랑이다. 작가는 초능력이라는 설정을 통해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질문을 던진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받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에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의미를 묻는다. 아픈 성장의 과정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책](#)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사서 김경주

질문의 숲




#청소년 인문학
 #삶의 질문
 #나다움
 #일상의 작은 물음

글 | 김종원
 출판사 | 포레스트북스(2025)
 쪽수 | 26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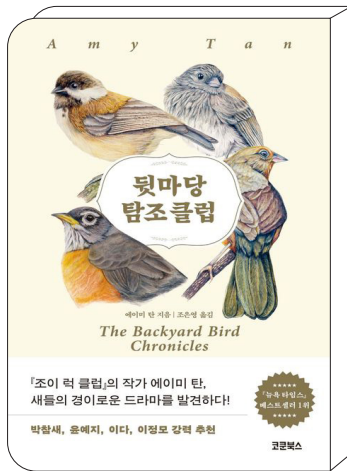
“원래 주인공은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나는 지금 사소한 역할을 맡은 게 아니야.
 대단한 꿈을 펼치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거야.”

- 160쪽 발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내 미래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 이 책은 청소년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70개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잡아주는 인문 교양서이다. 철학적 질문도 어렵지 않게 풀어내며, ‘질문’이 가진 힘과 생각하는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전한다. 우리는 흔히 정답을 찾는 데 익숙하지만, 질문은 어쩌면 끝없는 여정의 나침반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질문의 숲」은 제목처럼 숲 속에 들어선 듯 다채로운 질문으로 가득하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방향을 잃은 듯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점점 자신만의 생각과 목소리를 만들어가게 된다. 한 가지 답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정은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다. 바로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싶은 청소년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사서 이효진

뒷마당 탐조클럽



#과학 #조류 #탐조
#조류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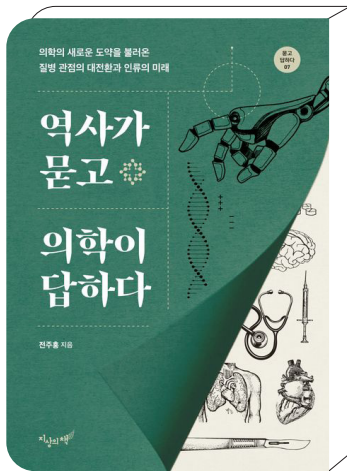
글 | 에이미 탄
출판사 | 코쿤북스(2025)
쪽수 | 500p

“이 새들 덕분에 나는 집에만 있으면서도
간혀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너무 많은 것들이 새롭고, 발견할 것들도 너무 많다.
치명적인 질병의 유령 때문에
꼼짝 못해도 새들을 볼 때만큼은 자유롭다.”
- 325쪽 발췌

예쁜 새들의 삽화로 가득한 방대한 탐조일지인 이 책의 저자는 특이하게도 동물학자가 아닌, ‘조이 럭 클럽’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제이미 탄’이다. 작가는 예순넛의 나이에 자연 일지를 쓰는 야외 수업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야생 조류의 그림을 그리고 탐조 활동을 하던 중 자신의 뒷마당이 새들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더 많은 새들이 찾아와 머물 수 있게 수목을 가꾸고 모이를 제공하자 새로운 새들이 몰려들었고, 그녀는 그녀의 뒷마당에서 벌새, 굴뚝새, 참나무관 박새, 미국까마귀, 큰 뿔부엉이 등 63종의 새를 맞이하며 6년 동안 그들의 습성을 관찰하고 스케치하고 기록하였다. 총 50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양이지만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다. 아름답고 정교한 삽화와 새에 대한 애정 어린 관찰력,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이 위트 있는 글과 어우러져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롭게 읽혀 나간다. **책**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사서 이아란

역사가 묻고 의학이 답하다



#질병 #기술 #미래

글 | 전주홍
출판사 | 지식의책(2025)
쪽수 | 30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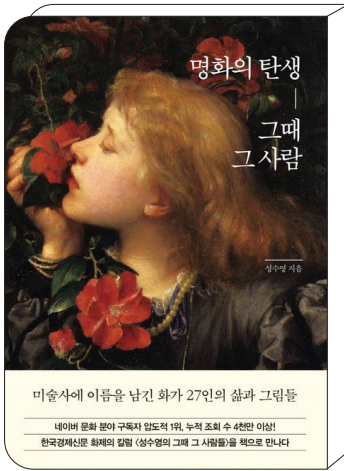
“과학은 지식의 빈틈과
무지의 자각을 일깨우면서
세계의 구성과 실체에
점점 더 다가서도록 해줍니다.”

- 175쪽 발췌

코로나19를 경험하고, 또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우리는 질병이나 건강, 의학에 대해 부쩍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수가 생명과학이나 의학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의학이 발전해 온 과정이 궁금한 독자를 위해 쓴 책으로 신화적, 종교적 관점에서의 질병의 미신적 치료, 자연적 원인에 따른 질병 분석(4체액설), 해부학과 병리학, 예술이 의학에 끼친 영향, 분자의학의 발전과정, 정밀의학시대의 정보의 중요성 등을 시대순으로 설명해 준다. 고대부터 역사적으로 질병에 대한 인식과 치료방법이 당시의 세계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알아봄으로써 현재의 의학적 성취와 한계를 돌아보고 나아가 인공지능시대에 급변하는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학이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비판적 성찰을 가지고 질병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여 앞으로 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찬**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사서 이아람

영화의 탄생, 그때 그 사람



#영화 #화가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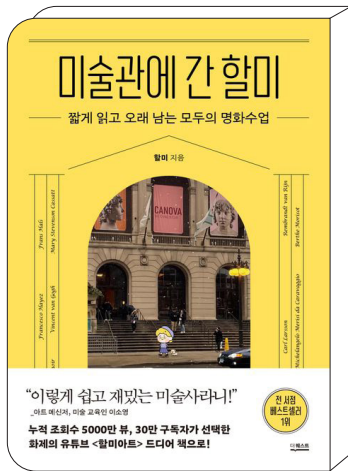
글 | 성수영
출판사 | 한경arte(2024)
쪽수 | 344p

“우리 인생에서 삶과 예술에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채는 사랑이다.”
- 마르크 샤갈
- 31쪽 발췌

색채의 미술사로 불리는 마르크 샤갈은 왜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야수파 등과 같은 특정한 미술 사조에 속하지 않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그림을 그렸을까?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유명한 그림도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화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 책의 작가는 사람들이 미술을 모른다는 이유로 미술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술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다리를 놓고자 영화 속 숨은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한다. 사랑, 헌신, 고난, 일상 4가지 주제로 화가 27인의 삶을 통해 그림을 설명하고 있으며 마치 한 편의 소설과 같은 화가의 일생을 알고 나면 영화가 어떻게,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책**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사서 김혜정

미술관에 간 할미



#미술사 #명화
#유튜버할미아트

글 | 할미
출판사 | 더퀘스트(2025)
쪽수 | 28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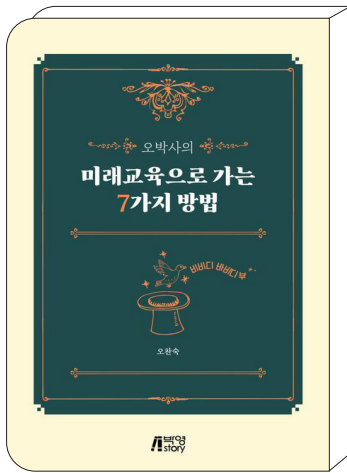
“수만 개의 작은 점들이 모여 탄생한 쇠라의 걸작,
언뜻 보기엔 마냥 한가로운 풍경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아름다운 그림은 꽤나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고 해.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볼까?”

- 95쪽 발췌

‘미술관에 간 할미’는 미술은 다가가기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좋은 책이다. 저자 할미는 르네상스부터 현대 미술까지 다양한 미술 작품을 유튜브 솜품을 통해 소개하는 유튜버다. 이 책은 작가의 유튜브 채널의 연장선 격인 책으로 긴 호흡의 글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에게 다양한 미술 작품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할머니가 손주에게 설명하듯 쉽게 소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과 관련된 시대상, 작가의 생애, 당시 그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 등을 짧은 글로 소개해 주고 있다. 살인죄마저 용서받은 화가, 아내를 300번 넘게 그린 사랑꾼의 찝찝한 비밀, 늙은 유령들이 하객이 된 결혼식 등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화두를 던진 후 미술 작품을 소개하여 책의 부제처럼 짧게 읽고 오래 남는 명화 수업을 진행한다. 낯선 미술 용어 때문에 미술관에 가기 망설여졌던 독자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책**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사서 정세희

(오박사의)미래교육으로 가는 7가지 방법



#미래교육 #주도성
#OECD학습나침반2030
#프로젝트학습

글 | 오찬숙
출판사 | 박영스토리(2024)
쪽수 | 280p

“개혁을 추진할 때 의도대로 실행되기를 바라지만,
개혁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확산과정에서 변화하고 진화한다.
따라서 현장에 맞게 다소 조정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유연성이 개혁을 존속하게 한다.”

- 238쪽 발췌

이 책은 저자의 두 번째 저서인 「학교를 변화시키는 마법」에서 한 챕터로 다루었던 ‘미래학교’를 비전과 방법론의 관점에서 더 구체화해 엮어낸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지향하는 미래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의 바탕 위에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각자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을 지향한다. 또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권에 따라 매번 바뀌는 교육 과정이나 대학 입시가 아니라 교육 본질에 기반한 지속적인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미래 교육의 기획자나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하는 교육자들에게 저자의 풍부한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책**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사서 신재희

공부라는 세계



#공부#세상
#삶
#선택

글 | 켄 배인
옮김 | 오수원
출판사 | 다산초당(2025)
쪽수 | 38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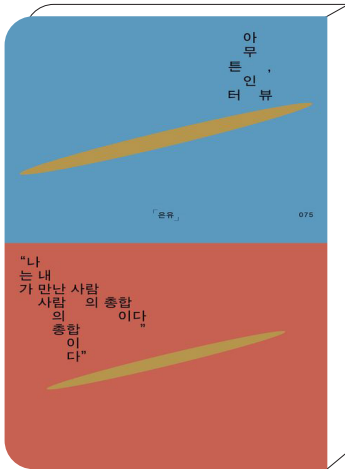
“그래서 기존의 낡은 방식이
언제 효력을 잃는지 아는 사람들,
기이하고 어려운 일을 오히려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 22쪽 발췌

당신이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그 대답은 다르다. 누군가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누군가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심지어 누군가는 높은 점수를 받아 남보다 자신이 나은 것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 공부한다. 그러나 이것은 암기와 경쟁을 강조하는 제도권 교육의 대답에 가깝다. 그리고 그 대답은 보통 문제의 개념보다는 행동수행 절차를 강조, 내적동기보다 보상에 관심이 많은 ‘효율적 학습자’들을 길러낸다. 그런데 이런 ‘효율적’ 학습법은 제도권 교육에서의 점수 획득에는 유리하지만, 학습자의 흥미를 지속하는 동인이 약하다. 즐겁지 않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학습만 반복되며, 그래서 이후의 성장 및 개념의 응용에 취약해진다. 성장의 한계치가 낮아진다. 반복되는 암기의 미로를 헤매기보다, 세상이 경이로운 곳임을 보여주고 내면의 힘을 끌어내는 법을 알려주는 공부, 삶의 방식에 대해 가르쳐주는 공부는 없을까? 이 책은 그런 공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찬**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사서 최아람

아무튼, 인터뷰



#인터뷰 #르포르타주작가
#인터뷰방법

글 | 은유

출판사 | 제철소(2025)

쪽수 | 2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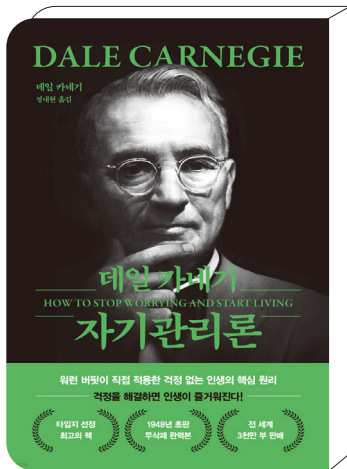
“나를 변화시켜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인생에서 누구나 누리기 어려운
선택받은 축복이다.”

- 152쪽 발췌

내가 인터뷰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충남의 어느 독립서점에서 발견한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김지수 지음)이라는 책 때문이다. 그 책에 실린 윤여정 배우의 “난 공부는 못해도 숙제는 해갔어요.”라는 말에 영감을 받은 후 인터뷰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아무튼, 인터뷰」의 저자 은유는 20여 년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노하우, 실패담, 인터뷰 후기 등 인터뷰에서는 알 수 없었던 뒷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인터뷰이를 ‘공부하고 덕질하며 마침내 만나는 과정’이 ‘짧은 연애’ 같다고 말한다. 이 책 전반에 사람에 대한 애정과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있어 읽는 내내 마음이 따뜻하고 때로는 찡했다.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법과 팁이 부록으로 실려있어 주변인부터 인터뷰를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용서의 역할을 한다. 「아무튼, 인터뷰」를 읽으면서 그간 생각만 했던 할머니의 인터뷰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사서 신재희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자기관리 #자기계발
#스트레스 #행복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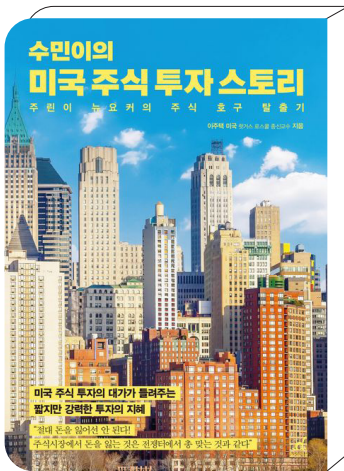
글 | 데일 카네기
출판사 | 더스토리(2024)
쪽수 | 397p

“걱정을 피하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러 경이 말한 것처럼 하라.
‘오늘을 충실히’ 살라. 미래의 일로 조마조마하지 마라.
잠들기 전까지의 그날 하루만 살라.”
- 397쪽 발췌

“이번 프로젝트 걱정으로 요즘 밤에 잠을 못 자”, “그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혀”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하기도, 듣기도 한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은 바로 이 ‘걱정’이라는 감정에 마주하며 그것을 관리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자기계발서이다.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인간 경영과 자기 계발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많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걱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원칙과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걱정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생각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걱정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걱정은 행동을 낳지 않는다. 오히려 그 걱정에 대한 분석과 계획, 실천이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1948년 출간된 초판 완역본이다. 고전이지만 시대를 초월한 공감과 통찰을 담고 있는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추천한다. **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사서 유승림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



#주식#투자 #주린이
#주식초보

글 | 이주택
출판사 | 월요일의꿈(2025)
쪽수 | 19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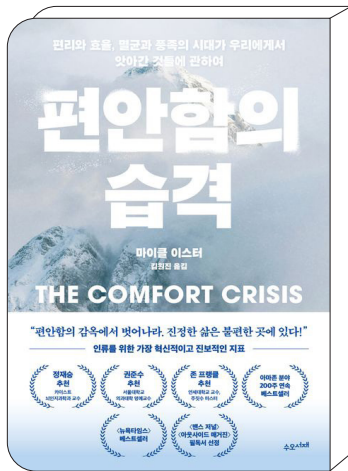
“토끼보다는 거북이처럼 실수 없이 천천히 가야 하는데,
토끼처럼 빠르게 속도를 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실수와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천천히, 잃지 않고
인내심 있게 원칙대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 45쪽 발췌

주식 공부를 위해 책을 고르다 보면 두꺼운 책과 낯선 용어들에 겁부터 난다.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 책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주식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다. 주린이의 시선으로 배워 가며 성장하는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내 주식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전략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한 주인공 수민이 멘토인 반 교수를 통해 주식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주식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투자하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고 시장에서 사과를 사고 팔 듯이 거래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화려한 성공담보다 현실적인 조언으로 가득한 이 책은 주식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책**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사서 이지민

편안함의 습격



#편안함
#편리 #불편

글 | 마이클 이스터
출판사 | 수오서재(2025)
쪽수 | 443p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깥만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더기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
튀는 행동을 하고 그걸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인생의 진짜 도전은 내면을 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토는 내가 정말로 불편한
원가를 해내겠다는 겁니다.”

- 85쪽 발췌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SNS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는 휴대폰이나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친구들과 소통하기가 어려워졌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고, 산을 오르는 일은 더욱 버거워졌다.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의 불편함이 되기도 하며, 우리는 점점 더 큰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었다. 몸은 편안해졌지만, 과연 이 편안함이 나를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편안함의 습격』은 현대인이 잃어버린 ‘불편함’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책이다. 저자는 인간이 본래 지닌 회복력과 적응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알래스카의 툰드라로 떠나 사냥과 생존을 경험하며, 문명의 안락함이 우리를 얼마나 나약하게 만들어왔는지를 증명한다. 다양한 편안함들은 인간을 변화시켰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언제나 최선이었던 것은 아니다. 불편함이야말로 성장의 조건임을 깨닫고, 편안함에 잠식되지 않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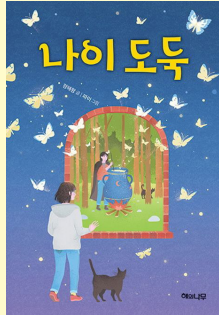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사서 박은동

책과 영상의 만남 북트레일러

경기도교육청 [학생 북CC공모전,
"QR로 잇는 북세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수상작]

잡자는 책을
깨워라

두드림 BOOK 부문



2:24



나이 도둑

정해왕 | 해와나무

제작 송원초등학교
박주하, 변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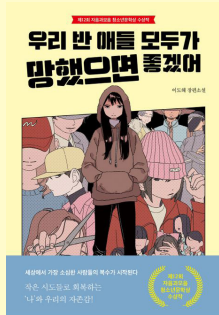
1:26



엄마 아빠 자격증

키키유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제작 고산별빛초등학교
이지안, 조하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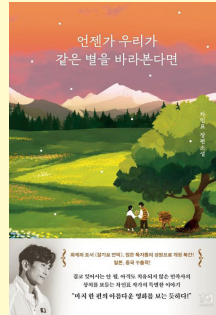
1:48



우리 반 애들 모두가 망했으면 좋겠어

이도해 | 자음과모음

제작 한봉고등학교
고예은, 한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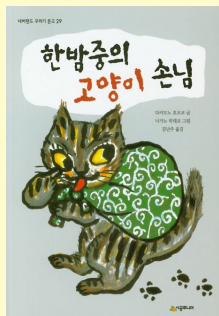
2:23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차인표 | 해결책

제작 금정중학교
박하윤, 임정혜,
장가연



1:27



한밤중의 고양이 손님

다카도노 호오코 | 시공주니어

제작 고리울초등학교
김민서, 김정우
이지아, 정윤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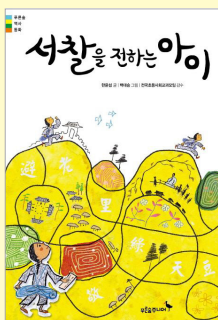
미술관 추격사건

박그루 | 밝은미래

제작 산운초등학교
고민서, 김서우
박서현

내가 제일
잘나가

나잘란 BOOK 부문



2:39



서찰을 전하는 아이

한운섭 | 푸른숲주니어

제작 소화초등학교
유시은, 이채원,
정윤슬



2:33



유진과 유진

이금이 | 밤티

제작 흥진중학교
권지유, 이윤서
한서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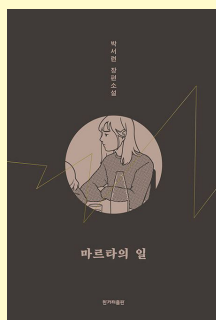
1:49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이꽃님 | 문학동네

제작 대부초등학교
김희서, 이소율,
홍하늘



1:33



마르타의 일

박서련 | 한겨레

제작 광주중앙고등학교
김가현, 박미애



1:14



나비 엔딩

이윤주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제작 진접초등학교
문현서, 이서연,
조예린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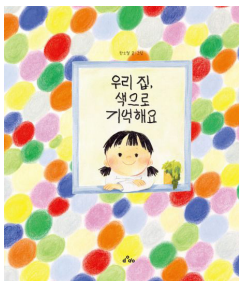
시한부

백은별 | 바른북스

제작 양영중학교
김서은, 장민교

그림책의 발견 색과 함께 성장하는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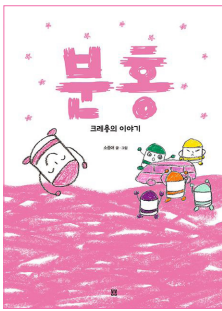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여주기념도서관 사서 김지인,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 사서 정지희



우리 집, 색으로 기억해요

한소월 | dodo | 2025

주인공 보미가 이사를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처음 보는 '초록빛' 숲길, '푸른빛' 까치, '보랏빛' 수국. 새로운 곳은 분명 낯설지만, 이 다채로운 색들은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하늘 위 노란 태양과 은빛 달도 여전하다. 색깔들을 서로 연결 짓다 보면, 새로운 장소는 어느새 친숙해질 것이다.



분홍 : 크레용의 이야기

소중애 | 봄봄출판사 | 2025

분홍 크레용은 분홍색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을 분홍색으로 칠해 나갔다. 하지만 분홍으로 덮인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뜨겁고 무서운 해님은 분홍 크레용에게 단호하게 가르쳐주었다. “모두들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가 예쁜 거야.” 바로 이 세상은 알록달록할 때 가장 예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빨주노초파남보 몽땅 색깔 세상!

피파 굿하트 | 사파리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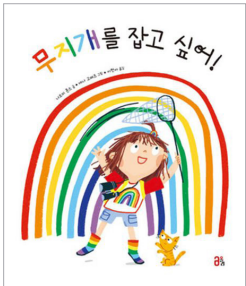
빨주노초파남보, 색깔별로 온갖 사물들이 페이지 가득 펼쳐진다. 물체의 이름과 쓰임을 자연스럽게 상상해 보고, 그려진 사물의 수를 세어 보고, 마음대로 분류도 해보자.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부터 다소 생소한 잡동사니까지, 한 장 한 장 집중해 가며 책 속의 모든 사물을 '몽땅' 찾아보고 싶어지는 그림책이다.



빨간 점

김지영 | 길벗어린이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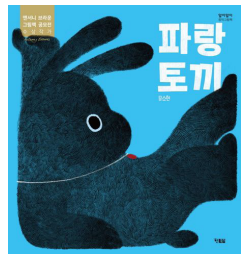
어느 날 얼굴에 생긴 빨간 점 때문에 아이는 온 세상이 그 점만 바라보는 것 같아 불안해한다. 긴장 속에서 아이는 문득 친구들의 얼굴에도 각자의 빨간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숨겨려 할수록 더 커지는 빨간 점을 통해, 이 이야기는 단점이 결코 부끄러운 점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작은 점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한다.



무지개를 잡고 싶어!

나오미 존스 · 애나 고메즈 | 울리 | 2025

무지개를 좋아하는 아이가 자신만의 무지개를 갖고 싶어 무지개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담은 그림책이다. 무지개를 찾는 동안 여러 번의 실패를 겪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주인공의 모습처럼, 어린이들도 용기를 얻고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 끈질기게 도전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파랑토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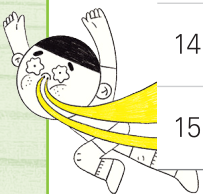
문소현 | 현복스 | 2025

토끼굴에서 살아가는 토끼들에게 굴 속은 세상의 전부다. 어느 날, 한 토끼는 굴 속으로 굴러떨어진 '새'를 만나 친구가 된다. 새가 바깥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토끼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는다.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메시지를 '파랑'이라는 색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인 책이다. 안전하고 아늑한 토끼 굴을 벗어나 미지의 세상으로 모험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색깔로 빚어낸 이야기



순번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
1	나타났다! 색깔 유령	히라기 미츠에	비룡소	2023
2	난 핑크 공주야!	김효정	머스트비	2025
3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	진주	핑거	2024
4	네 기분은 어떤 색깔이니?	최숙희	책읽는곰	2023
5	노란 버스	로렌 롱	지anger린이	2024
6	도화지 한 장의 기적	나가사카 마고	라임	2024
7	뒤죽박죽 카멜레온	에릭 칼	시공주니어	2022
8	목탄	조이 콩스탕	논장	2025
9	10 CATS 장난꾸러기 고양이의 색깔 놀이	에밀리 그래빗	비룡소	2025
10	흠뻑흠뻑 노랑이	이현영	현복스	2025
11	색이 사라진 아침	제롬 뒤부아	봄별	2025
12	오늘은 회색빛	로라 도크릴	웅진주니어	2024
13	초록을 좋아하는 고양이	백유연	봄봄출판사	2025
14	색깔 전쟁	시모 아바디아	스폰북	2024
15	색깔 없는 세상	칠리에트 아담	라임	2024



책 속 문장

짧은 문장만 읽어봐도 마음에 와닿는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는건 어떨까요?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사서 최아람

어린이



창박의 기린
김유경 | 흥지혜 | 2025

“어떤 게 나답게 사는 건지 생각해 봤어... 그때는 소외되기 싫어서 동물들과 거리를 두려고 억지로 노력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정말 좋고 편안해”

- 141쪽 발췌



청소년


The Catcher in the Rye
J. D. Salinger

호밀밭의 파수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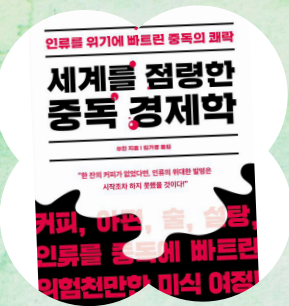
호밀밭의 파수꾼
저음 데이비드 샬린저 | 정영목 | 2023

유일하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우리들일 것이다. 나이를 더 먹는거나 그래서는 아니다. 정확하게 그건 아니다. 그저 우리는 늘 변해간다.

- 164쪽 발췌




성인



세계를 점령한 중독 경제학
박춘 | 이든서가 | 2025

설탕은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었기에 ‘노동자의 에너지 원천’이라 불렸고, 석탄은 ‘기계의 에너지 원천’으로 불렸다. 이 두 가지는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구성요소였다.

- 59쪽 발췌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25년 겨울호(Vol.75)에 추천된 도서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건축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사서 김보경,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사서 임체연

최 근 로블록스, 제페토, 마블러스, 다즈 등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등장으로 가상공간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이용자가 직접 세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참여형 공간으로 진화 중이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경험(experience)'을 제작하고, 홍보를 통해 이용자를 모으거나 친구를 초대해 함께 즐긴다. 아바타 꾸미기로 유명한 제페토에서는 이용자들이 가상의 아바타를 또 하나의 자아로 여기며,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진을 찍거나 일상을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해 게임과 가상공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미래에는 누구나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되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해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란 정확히 무엇일까? 그리고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탄생하는 직업일까?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책 6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책](#)

메타버스 파헤치기 :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

메타버스 언박싱

이정호 | 글라이더 | 2022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오프라인 공간을 넘어 온라인 세계에서 소통하고, 서로를 경험하는데 익숙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역사, 산업과 서비스를 다섯 장에 걸쳐 소개한다.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펼쳐 보자.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이 책이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만이 답일까?

십 대가 알아야 할 메타버스와 미래 세상 이야기

천윤정 | 팜파스 | 2022

이 책의 저자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술 세계와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업군을 설명해 준다. 이 책을 읽으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게임 개발자, XR 콘텐츠 제작자, 메타버스 아바타 패션 디자이너, 가상 자산 보안 전문가 등 다양한 메타버스 관련 직업군을 살펴 보자. 이 책은 메타버스 산업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훌륭한 멘토가 되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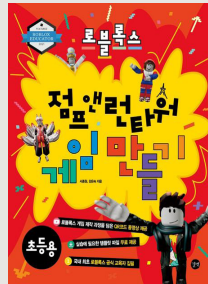


가상 공간의 시대,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의식

메타버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동은 | 이지북 | 2022

남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시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는 청소년들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길 권한다. 어용어스, 로블록스, 제페토 등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메타버스 공간부터, 메타버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시민 의식까지 함께 이야기해 준다.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세상의 두 얼굴을 이해하고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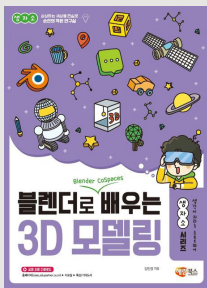


국내 1호 공식 교육자가 전하는
로블록스 게임 제작 정석

로블록스 점프 앤 런타워 게임 만들기

서종원, 강은숙 | 길벗 | 2022

국내 최초 로블록스 공식 교육자가 직접 집필한 책이자, 로블록스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훌륭한 입문서이다. 동영상 강좌도 함께 제공된다.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주요 기능을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하는 데 그쳤던 기존 책들과 달리, 이 책은 점프앤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만들면서 지형 제작, 파트 조합, 코딩, 게임 공유에 이르기까지 게임 제작의 흐름 속에서 주요 기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잠깐만요' 코너를 통해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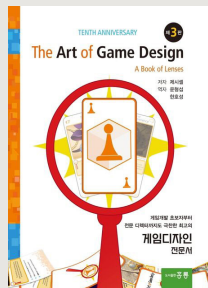


블렌더로 구현하는
나만의 가상 우주

블렌더로 배우는 3D 모델링

김민정 | 해람북스 | 2022

학습자는 '우주 탐험가'가 되어 가상의 우주 공간을 직접 만들어 본다. 기능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특정 분야에만 치중했던 기존 책들과 달리, 이 책은 공간 디자인 전 과정을 따라가며 필요한 오브젝트를 골고루 제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본 모델링, 조각, 채색, 렌더링 등 다양한 블렌더 기능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는다. 이 책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웅만한 가상공간은 스스로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게임 디자인:
몰입과 상호작용의 모든 것

The Art of Game Design

제시 셸 | 홍릉과학출판사 | 2022

게임 디자인의 바이블. 이 책은 '흥미로운 경험'을 만드는 방법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 세계에 구축된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인터랙티브 공간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구축되었을 때 이용자는 비로소 즐거움을 느낀다. 몰입감 있는 이용자 경험은 어떻게 탄생할까? 저자의 문장을 따라 책을 읽다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요소를 '렌즈'로 정리한 앱도 있는데, 메타버스 기획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과연계 추천도서 초등 1~2학년 국어

경기도교육청김포도서관 사서 정은교 |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사서 윤정화

초등
1학년



국어(1-2-4) 감동을 나누어요

이상한 도서관 | 천웨이연 | 섬드레 | 2025

도시의 마지막 도서관이 사라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도서관이 있던 자리에는 전에 본 적 없는 자판기들이 세워져 있다. 이상한 자판기가 너무 궁금했던 한 사람이 동전 하나를 넣어 보았다. “퐁!” 자판기에서 유리병 하나가 나오는데, ‘고전 명작’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 도시에는 자판기가 점점 늘어나고, 자판기에서 나온 이상한 음료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다. 도대체 이 음료는 무엇일까? 도서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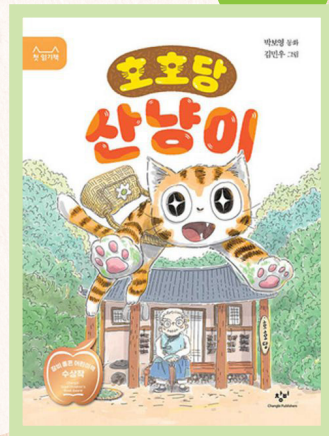
국어 (1-2-8) 느끼고 표현해요

호호당 산냥이 | 박보영 | 창비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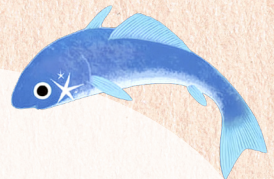
말썹꾸러기 고양이 산냥이가 신비한 약초가 가득한 호약산과 약방 호호당을 지키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이야기이다.

큰 사랑으로 산냥이를 품은 산군(山君) 호호 할멈부터 오지랖 넓은 하늘다람쥐 오람이, 음흉한 너굴 아재까지 다채로운 동물 캐릭터가 등장한다. 실수를 연발하지만 호호 할멈의 사랑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산냥이의 모습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초등
1학년



초등
2학년



국어(2-1-5) 마음을 짐작해요

아라온호와 함께 | 김옥애
청개구리 | 2025

꼬마 연어 별이가 북태평양 바다를 여행하며 겪은 모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별이는 여행 도중 무리에서 떨어져 길을 잃지만, 홀로 고난을 헤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낸다. 이 책은 별이가 무리에서 떨어지게 된 이유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로 설정하여, 환경 생태 의식을 중심으로 서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이야기를 읽은 어린이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별이를 통해 삶에 대한 긍정과 강한 의지는 물론, 환경 생태 의식까지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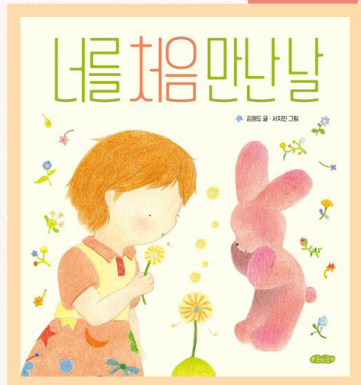
국어(2-1-8)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요

너를 처음 만난 날 | 김영도
호랑이꿈 | 2025



초등
2학년

토끼 인형을 선물 받은 아이는 언제나 곁에 있던 그 인형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 인형을 잃어버리고, 아이는 깊은 슬픔과 상실을 마주하게 된다. 한참이 지난 후 인형을 새로 선물 받지만, 처음엔 마음을 열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친구와 우정을 쌓아간다. 이 책은 '소중한 존재를 잃는 일'과 '다시 마음을 여는 일'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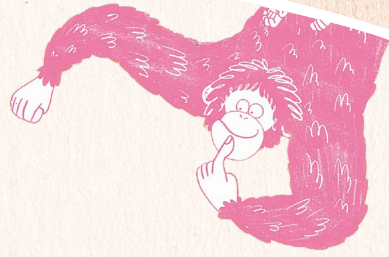
교과연계 추천도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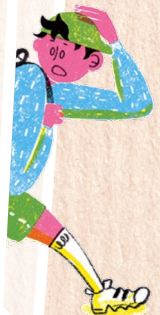
초등국어
1학년
(1-2-4)
감동을
나누어요

분야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
초등국어 1학년 (1-2-4) 감동을 나누어요	이상한 도서관	천웨이엔	섬드레	2025
	2학년 3반 오지랴 오지영	윤정	그린북	2025
	카롱 카롱 마카롱	이빛	크레옹하우스	2025
	친구 자판기	조경희	노란돼지	2025
	라운의 특별한 여행	한은경	도토리숲	2025
	오감밖 선생님과 노빵점 교실	이란실	파스텔하우스	2025
	만약에 어느날	브루스 핸디	불광출판사	2024
초등국어 1학년 (1-1-2) 받침있는 글자를 읽어요	우리 학교 ㄱ ㄴ ㄷ	김지영	파란자전거	2025
	나래와 산이의 글자 찾기 모험	어린이한글 교육연구회	리더스가이드	2024
초등국어1학년 (1-2-1) 기분을 말해요	후드득 비가 오면	탕무니우	책속물고기	2025
	똑똑한말, 당당한 말 따라쓰기	고정욱	우리학교	2025
초등국어 1학년 (1-2-8) 느끼고 표현해요	힘내라, 힘!	김세실	나무말미	2025
	호호당 산냥이	박모영	창비	2025
	하여튼 이상해	현단	뜨인돌어린이	2025
	티나의 알	심명자	고래책방	2025
	탱탱볼	김희주	고래벳속	2025
	별에게	안녕달	창비	2025
	아주아주 긴 강아지 랄프	그웬달 르 벅	봄날의 꿈	2025
	엄마가 화르륵	홍주연	고래벳속	2025





분야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
초등국어 2학년 (2-1-5) 마음을 집착해요	아라온호와 함께	김옥애	청개구리	2025
	나의 특별한 섬	양선	소원나무	2025
	누가 두더지 할아버지의 친구가 될까?	수수아	팜파스	2025
	다판다 편의점 1	강효미	다산어린이	2025
	몬스터를 찾아라마법의 숲	백명식	고래책방	2025
	여우의 자전거	르쿠스 군나르 페테르손	지양어린이	2025
초등국어 2학년 (2-1-8)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요	같이 놀자	표영민	청개구리	2025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쓰카 겐타	토끼섬	2025
	너를 처음 만난 날	김영도	호랑이꿈	2025
	넌 어떻게 보이니?	빅토르 벨몬트	미래아이	2025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완벽한 방법	가브리엘라 발린	나무말미	2025
초등국어 2학년 (2-2-4) 마음을 전해요	가위바위보	표영민	청개구리	2025
	문 밖에 여전히 사자가 있다	윤아해	뜨인돌어린이	2025
	사랑해요 아빠!	리밍주	섬드레	2025
	아무거나 문방구 2	정은정	창비	2025
	우리는 말썹꾸러기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논장	2025



시(詩)가 내려앉은 자리, 우리들의 일상이 자라는 시간

이항초등학교 김혜경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삶의 굽이마다 시를 만나 일상이
촉촉해지는 경험을 만끽하고 있는 김혜경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23년 동안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지금은 교감 3년 차로 학교
구성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활기가
넘치면서도 때로는 치열합니다. 바쁜 일상 속 한
편의 시를 읽는 찰나의 순간, 마음속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니다. 그 울림이 좋아 동시 쓰기 모임과
낭송 모임에 참여하며 시의 향기를 나누고 있고,
전교생의 마음을 담아 시를 엮어 학교 문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서툴게 적어
내려간 한 줄의 문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맑은
눈을 발견할 때 큰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일상이 어떻게 시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시를 통해 자신의 우주를
만들어냈는지 두 권의 책을 통해 소개하려 합니다.

『국수 때밀이』

김시운, 김하온 | 교래책방

초등학생 김시운, 김하온 쌍둥이 자매의
솔직한 일상과 감성 가득한 어린이 시집 『국수
때밀이』입니다. 펼치는 순간, 저는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목인 ‘국수
때밀이’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 때 나오는 모양을 ‘국수에 비유한 아이의
천진난만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조각들을 아이들의
언어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국수 때밀이』는 ‘관찰의 힘’을 보여 줍니다. 김시은, 김하온 자매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과 대화를 나눕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차과에서 짜릿한 순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길가의 나무와 꽃을 보며 느낀 감정들이 날것 그대로의 언어로 살아 움직입니다.

시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춘식이, 내가 좋아하는 핫도그가 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 시집을 읽으며 “어? 나도 이런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는 해방감을 맛보길 바랍니다.

『성장통』 백은별 | 부크크

앞서 소개한 『국수 때밀이』가 초등학교생의 특특 튀는 감성을 담았다면, 고등학교생 백은별 작가 『성장통』은 조금 더 깊고 푸른 사춘기의 바다를 유영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 줍니다. 청소년 소설 『시한부』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그녀는 자가 출판 플랫폼 부크크에서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 책은 6학년 때부터 14세의 끝자락까지 그녀가 가진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나



겪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성장통』을 읽으며 ‘정서적 공감과 위로’를 건네고 싶어서입니다. 시집에서는 ‘시기를 겪으며 지나온 사랑, 아픔, 청춘을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성장통을 겪습니다.

『성장통』 속의 시들은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진솔한 고백에 가깝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지요. 시를 읽는 행위는 결국 타인의 아픔에 내 마음을 포개어보는 일입니다. 경험에 공감하며 위로받기도 하고, ‘아주 작은 위로’ 같은 시는 여러분에게 직접 위로를 건넬 겁니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이고, 시를 쓴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스마트폰 대신 시집을 펼쳐보면 어떨까요? 짧은 문장들이 여러분의 메마른 일상을 촉촉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가끔은 직접 연필을 들어 끄적여 보면 어떨까요?

새 학기의 설렘과 두려움, 점심시간에 본 구름의 모양, 친구와 짧은 대화에서 느낀 서운함이나 기쁨,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소망 등 이 모든 것들이 시의 씨앗입니다. A4용지 위에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경험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국수 때밀이』의 김시은, 김하온 그리고 『성장통』 백은별 작가처럼요. 제가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문집을 만들며 목격했던 그 반짝이는 눈망울들을 여러분도 스스로 안에서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한 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기를, 그리고 그 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이라는 커다란 시집이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

「지금 학교도서관은?

한 발짝 더 가까이, 책으로 여행을 떠나는

도공초 꿈꾸는 도서관

도공초등학교 사서 **고해숙**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배경

기존에 별관 2층에 위치해 있었던 도공초등학교 도서관은 면적이 약 86.4㎡로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서관은 ‘책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학생들이 오래 머무르며 수업이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공초는 학교도서관을 단순한 대출 중심의 공간을 넘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공간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으나, 대신 위치를 옮기고 공간의 쓰임을 재설계하는 방식의 재구조화를 통해 2023년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꿈꾸는 도서관의 특별한 공간 구성

도공초 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는 ‘확장’이 아닌 ‘개선과 재배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별관 1층으로 이전하여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간의 크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부 동선과 기능을 재구성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 도공초는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공간을 나누고 비우며 다시 배치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을 설계하였습니다.

첫째, ‘한 발짝 더 가까운 도서관’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꿈꾸는 도서관 전경 (계단식 열람공간, 서가 공간, 수업·열람 겸용 공간)



스마트도서관



VR 기기



전자칠판

높이기 위해 후문과 가까운 1층으로 도서관을 이전하고, 지역 개방 체육관 내에는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였습니다.


둘째, ‘책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동선까지 하나의 독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을 통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제별 자료 구성과 체험 요소를 더했습니다.

셋째, ‘미래형 학생 중심 도서관’입니다. 자가대출반납기, 전자칠판, VR·AR 기기 등을 배치하여 학생이 스스로 탐색하고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이후 변화

공간 재구조화 이후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를 대상으로 한 이름 공모를 통해 ‘꿈꾸는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도서관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머무르며 읽고, 이야기하고, 배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료 공간과 열람·수업 공간의 기능을

재구성하면서 수업과 독서 활동이 가능해졌고, 디지털 환경을 갖추며 독서와 정보 탐색, 체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서관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도서관을 단순히 ‘필요할 때 찾는 공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찾는 배움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학생 참여 중심의 독서 교육과 교과 연계 수업, 디지털 기반 독서·창작 활동으로 이어지며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점차 확장시켰습니다. 나아가 지역 도서관과 연계를 통해 스마트도서관에서 순회문고를 운영함으로써, 학교 안에 머물던 독서 활동은 지역사회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도공초 ‘꿈꾸는 도서관’은 학생들뿐 아니라 마을버스 기사님도 잠시 들러 책을 보고 싶어지는 공간으로, 지역과 일상이 만나는 독서문화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및 도서관 활용 수업



계단실을 활용한 열린 도서관



타공 게시판 및 계단식 열람공간

특별한 저격수와 육상 선수

〈부제명 : 아픔 속의 희망과 연대에 대하여〉



‘새책평가단’ 조혜영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의 재능기부 독서모임 ‘새책평가단’의 회원이자 두 10대 아이의 엄마입니다. ‘새책평가단’은 학부모, 지역주민, 도서관 사서가 함께 어린이 신간 도서를 읽고, 토론·평가하여 초등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된 도서를 추천하는 재능기부 독서모임입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슬픔, 상처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됩니다. 경쟁과 입시,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꺼내 놓게 도와줄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역사와 현재, 전쟁과 운동장이라는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도 소년, 소녀들의 아픔과 연대, 용기와 희망을 깊이 담아내는 두 권의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총과 겨울, 그리고 한 소녀의 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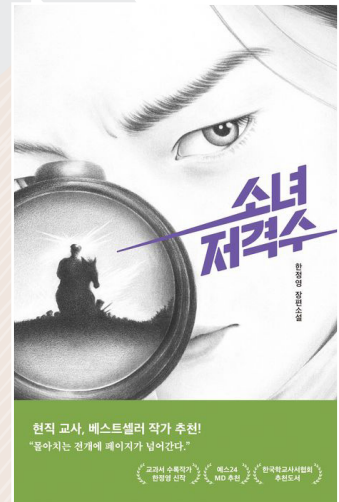
소녀 저격수

한정영 | 미래인 | 2024

『소녀 저격수』는 잃어버린 기억을 가진 소녀 설아가 자신의 정체를 찾아가는 역사 판타지 청소년 소설입니다. 설아는 어느 날 ‘나’에 대한 기억의 일부를 잃은 채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다가, 자신이 조선의 운명과 얽힌 특별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하나씩 떠올리게 됩니다. 독자는 그 기억을 긴장감 있게 따라갑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설아의 내면을 따라가며, 분노와 슬픔, 두려움과 죄책감 같은 감정이 어떻게 '싸우는 힘'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세밀하게 보여 준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배신과 폭력을 마주하면서도, 설아는 점점 '누구를, 무엇을 위해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인물로 성장합니다.


역사 속 설아의 이야기는 거리가 먼 옛날이야기 같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 우리 아이들과 정확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화가 나지만 그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꼭 함께 읽어 보고 싶은 작품으로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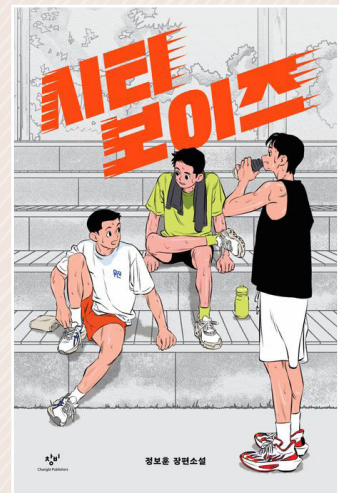


트랙 위 청춘들 시티 보이즈

정보훈 | 창비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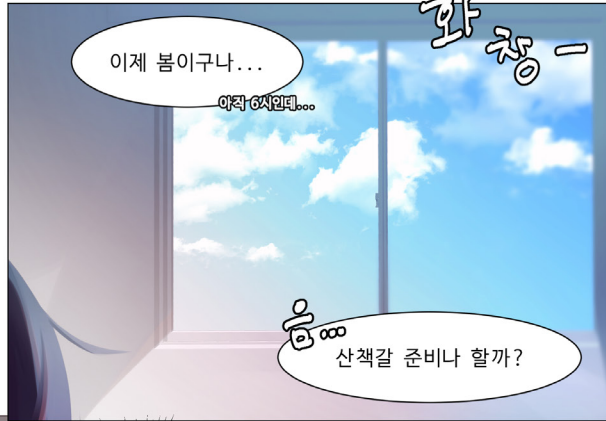
『시티 보이즈』는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과 「라켓소년단」의 작가 정보훈이 쓴 청소년 소설로, 해체 직전의 육상부 아이들이 다시 한번 전국체전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3학년이 떠나고, 신입생도 들어오지 않아 사실상 해체가 예정된 육상부에 전학생 희재가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특히 이 책은 승부의 세계를 너무 이상화하지 않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0.1초 차이로 메달 색이 갈리고, 최선을 다해도 1등을 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여겨지는 현실에서, 아이들은 “그럼 정말 실패한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마지막까지 가 보아도 삶과 스포츠가 늘 공정하게 보상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지를 보여 줍니다. 또한 팀의 중요한 주자로 활약하는 소녀 선수 등 여러 여성 인물들도 함께 등장해, 이 책이 누구나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이야기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중간중간 시나리오 형식의 장면 삽입으로, 마치 한 편의 청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생동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꽃샘온기

한봄고등학교 캐릭터창작과 3학년 최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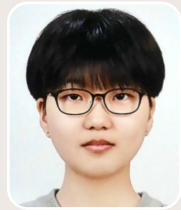




기획의도 

봄은 매우 따뜻한 계절이지만, 꽃샘추위나 꽃가루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생각보다 다정한 계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어른을 동경하지만, 어른이 되면 생각보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분명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려보았습니다. 

사서체험단이 이끌어 준 나의 진로



공미정 (효원고등학교 2026년 1월 졸업생)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도서관에 자주 갔다. 그냥 책을 읽기도 했고 DVD 열람실 이용이나 낭독회, 독도 캠페인처럼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다. 그렇게 몸에 밴 도서관 생활은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늘 도서관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책만큼은 누구보다 좋아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도서부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서가 정리를 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른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즐거웠다. 이 경험 덕분에 이전에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서'라는 직업을 진로로 삼게 되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난 후, 사서가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많이 헤매던 중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사서 체험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서 체험단」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료 구입 및 등록, 독서프로그램 기획 등을 배우고 직접 실습할 수 있었다. 이전에도 사서 선생님의 업무를 도와 새 책에 청구기호 스티커를 붙이고 넘버링 도장을 찍은 적은 있었지만, 시스템으로 자료를 직접 등록해 본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본래 사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사서가 하는 일이 도서 정리만 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독서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사서가 주관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며 사서 업무의 범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던 지하 보존서고를 견학한 경험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온·습도가 책에 맞게 철저히 관리되는 보존서고를 보며, 도서관의 역할이 자료 제공을 넘어 자료 수집·보존·관리 전반에 걸쳐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서 체험단」 활동 중 ‘사서는 생각 보다 외향적인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는 말을 듣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 활동을 통해 사서라는 직업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사서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막연했던 나의 꿈은 점차 뚜렷한 목표로 자리 잡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서 체험단」 활동 이후에는 사서가 되기 위해 부족한 점을 채우고, 고등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갔다. 문헌정보학과의 커리큘럼에 빅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도서관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는 점을 알게 되어 경기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운영교에서 개설된 빅데이터 분석 과목을 이수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기 쉽지 않았지만, 공공도서관 이용자 실태 조사를 직접 프로그래밍하며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수업 이후에는 데이터 분석 관련 책을 읽고, 파이썬을 활용해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며 배운 내용을 꾸준히 복습했다.

2학년 여름방학에는 한 대학교 도서관을 탐방하고 탐방 보고서를 작성했다. 실제 대학교는 처음 가봐서 다소 긴장되었지만, 도서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진학에 대한 열망을 키워 나갔다. 탐방 중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을 인터뷰한 경험도 의미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내게 필요한 도서를 알게 되었고, 진학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지도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 이 외에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방과 후 독서 모임을 주최했으며, 학급 반장을 맡아 책임감을 기르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수시 전형 면접을 준비할 때는 긴장과 불안이 컸다. 그동안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전 면접을 앞두고는 부담이 느껴졌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과 사서 선생님의 모의 면접 지도와 문헌정보학과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도와 구체적인 조언 덕분에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나는 목표로 삼았던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면접을 준비하며 지금까지의 노력을 되짚어보니, 문헌정보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사서라는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의 「사서 체험단」 활동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나에게 사서 체험단의 경험은 막막했던 진로에 방향을 제시해 준 결정적인 이정표였다. 나처럼 사서를 꿈꾸는 학생이 있다면, 「사서 체험단」 활동에 적극 참여해 보기를 꼭 권하고 싶다. 📖

QUIZ 독서퀴즈



1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소개하자면,
매년 미국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5대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합한 것보다 자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더 많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대체로 '○○' 때문이다.

[일반] 추천도서 31쪽

2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세상에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삶과 길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추천도서 19쪽

3



그림을 보고 책 제목을 맞춰보세요~

[어린이] 추천도서 6쪽



경기도교육청도서관 ↔ 교육지원청 ↔ 학교도서관 협력체계



학생중심 책읽는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 함께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031)240-4031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02)3677-0361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031)730-3564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031)369-5731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031)823-9521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	031)8054-8432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031)531-8751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031)768-6923
경기도교육청김포도서관	031)998-3538
경기도교육청여주가남도서관	031)882-1066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031)259-1031



발간등록번호 71-7530463-000001-08
ISSN 1976-8907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2026 봄호
Vol. 76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사서들이 만드는
학생중심 독서정보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는 e-book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ib.goe.go.kr/gg ▶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 e-독서정보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sahaengchaeg

